

# 광주 유기동물 3마리중 1마리 '안락사'

## 보호예산 부족·경제난 여파 올해 개·고양이 523마리 새 주인 못찾아

전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새 가족을 만나는 개들보다 입양이 안돼 '안락사' 당하는 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져 합한 시기를 보낸 뒤 새 주인을 만나는 개들보다 끝내 새로운 삶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개들이 많아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8일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주인에게 버려진 뒤 각 보호소에서 데려와 관리중인 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1580마리(개 962마리·고양이 618마리)로, 이 가운데 33%인 523마리(개 374마리·고양이 149마리)가 안락사 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새 주인을 만난 유기동물들은 513마리(개 353마리·고양이 160마리)에 불과했다. 안락사율이 분양률을 초과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안락사 당하는 유기동물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353마리 가 안락사 당한 뒤 ▲2012년 369마리에 이어 ▲올해 벌써 523마리까지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안락사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 9만9254마리 중 24.5%(2만4315마리)가 안락사 됐다. 안

락사율은 2005년 50.2%를 기록한 이래, 매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안락사 유기동물 숫자가 1000마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민 없이 반려 동물을 구입하는 의식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예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분양된 유기동물 수는 ▲2011년 1084마리 ▲지난해 1078마리로 매년 줄어오고 있다.

현재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최대한 보살필 수 있는 수는 150

마리다. 유기동물은 법적으로 10일간 보호를 받으면서 새 주인 등을 찾게 되지만 못 찾거나 병이 있을 때 안락사를 당한다.

광주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올해 유독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지난해 들어온 유기동물들 보호하다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했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도 부족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유기된 동물 수는 모두 5457마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842마리 ▲지난해 2035마리 ▲올해 1580마리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폭염엔 물놀이가 최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된 8일 오후, 곡성군 압록유원지에서 청소년들이 물장난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신임 부총장에 류중선(광주)·한경호(여수) 교수

전남대학교는 신임 부총장에 광주 캠퍼스 류중선(59·의과대학 소화기내과·사진 왼쪽), 여수 캠퍼스 한경호(52·수산해양대학 수산해양기술학부) 교수를 각각 내정하고, 8일 광의원회의 동의를 마쳤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8월 중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류중선 부총장은 전주출신으로 전남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에 임용돼 현재 전남대병원 진료처장으로 활동하

고 있다. 한경호 부총장은 부산수산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에 임용돼 수산해양대학장을 역임했다.

전남대는 지난달 23일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 각각 부총장을 둔다는 내용의 개정학칙을 공포했다. 또한 학칙에 구체적으로 부총장의 권한과 임무를 명시해 자율·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여수 캠퍼스 부총장 모두 대학경력 강



화, 캠퍼스 특성화, 발전기금 조성,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총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광주 캠퍼스 부총장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까지 맡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효과 미검증 설사약

### 20년간 환자에 사용

프랑스에서 들여온 유산균 설사약의 성분정보 오류 탓에 지난 20년 가까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복제약이 환자들에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등록정보와 실제 성분이 다른 정장제 '락테올' 3품목과 복제약 56품목을 잠적 판매 중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정장

## 위안부 동원·운영

### 일본군 직접 관리

### 고려대, 조선인 일기 공개

### 위안소 수입현황 매일 보고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직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됐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42년 8월부터 1944년 말까지 미안마와 싱가포르에 체류하면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조선인이 남긴 일기 원본을 공개했다.

1922~1957년 35년간 작은 그의 일기 가운데 위안소 관련 내용은 1943~1944년 2년치에 담겨 있다. 작성자는 일기에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 실태에 관한 기록을 여러차례 남겼다.

일기를 보면 작성자는 매일 오전 일본군 병참사령부에 위안부 관련 영업 일보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1943년 1월 12일자 일기는 "항공대 소속 위안소의 수입보고서를 연대본부에 제출했다"고 기록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혼한 뒤 위안부를 그만둔 여성에게 일본군이 복귀 명령을 내려 다시 위안부로 복귀한 기록도 담겨 있다.

"이전에 무라야마씨 위안소에 위안부로 있다가 부부생활하러 나간 하루요(春代)와 히로코(弘子)는 이번에 병참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서 킨센관에 있게 되었다더라."(1943년 7월29일자)

일기에는 일본 군의관이 직접 위안부를 검사했다는 기록, 위안소의 이동을 일본군이 통제해 기록 등도 적혀 있다. /연합뉴스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28분 달출 07시 51분 달몰 20시 27분

타는 듯한 더위

폭염 계속된 가운데 불쾌지수 높았다.

광주	맑음	26/35℃
목포	맑음	26/34℃
여수	맑음	25/33℃
나주	맑음	25/35℃
완도	맑음	26/34℃
구례	맑음	25/37℃
강진	맑음	26/34℃
해남	맑음	26/35℃
장흥	맑음	26/34℃
순천	맑음	24/36℃
영광	맑음	26/35℃
진도	맑음	26/33℃
전주	맑음	27/37℃
군산	맑음	25/34℃
남원	맑음	25/34℃
옥산도	맑음	26/32℃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목포	03:42	08: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m	여수	15:49	20:59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10:23	04:1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22:46	16:23

◇주간날씨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최저/최고	26/35	26/35	25/34	24/33	24/33	24/33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오늘 출범

### 기존 조직과 중복 '옥상옥' 우려

### '교육청 내 선거캠프' 지적도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9일 출범한다. 광주교육의 체계적 정책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옥상옥'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기획관 소속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사무실을 본관 2층에 마련하고, 9일 오전 10시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는 설립준비팀을 이끌었던 유양식 장학사가 소장을 맡고, 장학사 2명과 박사급 연구원 1명, 행정실무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석·박사급 연구원 3명과 일반직 주무관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광주교육정책의 중장기 교육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개발, 교육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광주교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연구과제는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과 특성교육 활성화 방안, 수준별 수능을 반영한 진학자료 개발, 대안교육의 발전방향과 정책 방안, 사립유치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교직원 역량강화 방안, 학교문화혁신 사업 연계 방안 등이다.

유 소장은 "다른 지역에는 모두 교육청 산하에 연구소가 있는데 광주에만 없었다"며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내년 선거에 대비해 장외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교육청 내 선거캠프'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교육이 전교조 성향으로의 스피릿현상이 심화되고,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51-1111 남서울대학교병원 본점: 02-276-0367, 9 강남점 강남구 테헤란로 106: 03-477-5110, 228 부평점 부평구 남곡로 151: 031-946-5110, 532 남원점 남원시 중앙로 151: 031-946-5110, 532 남원점 남원시 중앙로 151: 031-946-5110, 532 남원점 남원시 중앙로 151: 031-946-5110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FDA 미국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품질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